

# A POLLONIA

아폴로니아 제 91호 | 2012년 7월 | 경북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신문지

## 졸업 20주년, 선배들의 모교방문 - 시그널 1990

글 오주애 / 편집 이시영

지난 5월 21일 토요일, 본교 치의학 전문대학원(이하 치과대학)에서 치과대학 제17회 동거회의 졸업 20주년을 기념하는 홈커밍데이 행사가 열렸다. 경북 치대 17회 졸업생들의 홈커밍데이 행사는 [시그널 1990]이라는 제목으로 그 시절을 함께 떠올려 보는 시간이었다. 이번 행사를 개최하면서 17회 졸업생들이 십사일만으로 1억 원을 기부해 주었고 이는 학교 발전 기금과 동창회 발전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변화한 모교의 모습과 변화를 둘러보는 것으로 시작한 이번 모교 방문 행사는 총 3부에 걸쳐 1박 2일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1부 행사는 병문투어로 시작되었다. 병문투어를 마친 후에는 치과대학 강당으로 이동했는데, 이때 1층에서 1, 2학년 후배들이 열렬한 박수로 졸업 20년 만에 방문한 선배들을 맞이하였다. 17회 졸업생 배수근 준비위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김성교 치과대학장과 박민수 학생회장의 환영사와 배세복 동창회장의 축사가 있었고, 이어서 모교 발전 기금과 동창회 발전 기금 전달식이 있었다. 그리고 옛 추억을 되살릴 수 있는 사진들이 담긴 동영상을 함께 보면서 잠시 옛 추억에 잠기는 시간을 가졌다. 동영상이 끝나갈 때쯤 옛 생각에 잠겨 눈물을 보이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1층에서 단체사진촬영을 끝으로 1부 행사를 마쳤다. 2부 행사는 치과대학 2층 식당에서 17회 졸업생인 김종애 선생님의 나사금 공연과 함께 시작되었다. 열정적인 공연과 함께 은사와의 오찬을 끝으로 2부 행사를 마쳤다. 3부 행사는 강주로 장소를 옮겨 기념 파티로

진행되었다. 강주에서의 3부 행사에서는 마치 20년 전 함께 마시고 노래하던 것처럼 모두가 하나로 화합되는 자리였다. 세월은 많이 흘렸지만, 다시 만나 그 시절 이야기를 나눌 때 끈끈한 정은 그때와 같았고 이렇게 함께 느껴지던 17회 졸업생들의 만남의 빛은 지나가고 다음을 기다리며 모두 헤어졌다. 이번 행사는 졸업생들의 지속적인 모교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앞으로 우리 대학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후배 재학생들이 본보기가 되었다.



## 제 36회 나사금 축제 열려

글 안유진 / 편집 권이은



지난 5월 19일과 20일 열린 제36회 나사금 축제 모습. 이날 경북대학교 대구 캠퍼스의 글로벌 플라자 앞 광장에서 무료공연 및 구강 보건교육을 실시하였고, 오후에는 '나사금의 밤' 행사가 있었다. 둘째 날에는 게임이 진행되었다.

▶ 관련 기사 2면

### [ 주요 기사 ]

- 보도 1 졸업 20주년, 선배들의 모교 방문
- 1, 2 제 36회 나사금 축제
- 3 전지제
- 4, 5 6계 학년 소식

### 사회

- 6 치과가 플러스지
- 7 침묵의 살인자
- 8 이번 학 행사 다들 다들 다들
- 9 음악 디젤의 역습
- 10 3대 4일 졸업 여행
- 11 제10회, 32개의 피아노 소나타
- 12 태양의 후에, 세국한 의료인의 모습

### 문화

### [ 만든 이들 ]

- 편집부 박지훈, 이이재, 한승희, 박재근, 이거연, 홍준호, 권이은, 박재훈, 장우희, 손혜자, 김민호
- 보도부 이시영, 김경민
- 사회부 정경호, 유은경, 박준현
- 문화부 한성민, 박유주, 나재진, 안유진, 오주애
- 주승자 김다은, 박준현, 송승지, 신정원, 최영희, 김은재, 박재훈, 박준현, 박준현, 최수영, 김민호, 김현경

## 제 36회 니사금 축제 열려

글 안유진 / 편집 권이은

지난 5월 19일과 20일 이틀간 제 36회 니사금 축제가 열렸다. 첫째 날에는 경북대학교 대구캠퍼스의 글로벌 플라자 및 공관에서 무료검진 및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였고, 오후에는 '니사금의 밤' 행사와 함께 주악을 운영하였다. 두은 잔디밭이 펼쳐진 캠퍼스에는 여름이 조금 이르르게 찾아온 듯,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과 내리쬐는 햇빛이 학생들의 열기를 대변하는 듯 했다.

첫째 날 행사는 무료 구강 검진, 인상제형, 불소도포, 구강 보건교육, 구강 상식 퀴즈 총 5개의 부스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무료검진에는 이동식 치과병원 버스도 동원되었고, 버스 내부는 2개의 제어와 치과 진료에 필요한 대부분의 장비가 있다. 4학년 원생에게 주 진료를 담당하고, 1, 2학년 학생이 진료를 보조하여 치아 우식 및 치주 질환 등의 검진과 간단한 치료가 행해졌다. 학생들에게는 그동안 받아왔던 지식을 임상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와, 진료 버스에 방문하는 시민들에게는 무료로 구강 건강을 점검할 기회였을 것이다. 이날 오전에는 특히 노인분들의 방문이 많았다. 불소도포 코너에서는 불소가 어떻게 치아 우식을 예방하는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직접 불소 도포가 이루어졌다. 경북대학교로 캠퍼스 투어를 온 여산 여고 학생들이 대거 불소 도포를 받고 가기도 했다.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경북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나"며 질문을 하기도 했다. 인상제형 부스에서는 방문자의 차이를 알지내어 트와 시그를 이용해 인상을 제작하여 서로 오해를 만들어 주었다. 방문자들은 차이 오해를 기념으로 간직할 수 있어 흥미롭고 재미있다는 평이 많았다. 구강 보건 교육 부스에서는 붉은색의 열모를 이용하여 치대를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게 해준 구강 상태에 대한 상담을 해주었고, 최경범, 배소담 등 다양한 맞춤법 방법에 관하여 교육용 짚을 지퍼세트를 나누어 주었다.

구강 상식 퀴즈 부스에서는 구강건강에 도움이 되는 상식들을 퀴즈로 퀴즈를 구성하여 OX퀴즈를 진행하고 상품으로 짚을 지퍼 세트를 지급하였다.

오후 4시경 부스를 철거한 후에는, 학생들이 직접 무대에 서는 '니사금의 밤' 행사가 진행되었다. 2학년 박재경, 경원성 학우가 행사를 진행하였다. 김성교 원장님의 축사 후 밴드 동아리 A2의 오프닝 무대로 본격적인 니사금 가요제가 시작되었다. 휘몰아친 신명 나는 풍물, 치카벨라의 감미로운 아카펠라 공연 같은 동아리들의 수준 높은 공연은 물론, 저 인기 재능있는 학우들의 다양하고 열정적인 무대가 계속해서 펼쳐졌다. 김현준 학우 등 세 명의 예과 학생들이 "당신만이"를 열창하여 당당히 1등을 차지했으며, 예과 1학년 배준성 학우가 2등, 본과 2학년 김동민 학우가 3등을 차지하였다. 그 외에도 많은 학우가 무대 위로 올라와 평소에는 거운 속에 감추고있던 끼를 당당히 발산하였다. 무대 공연이 끝난 후에는 학생들은 물론 교수님들도 함께 주악에 참여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직접 음식을 만들고 나르면서 학우들의 사이가 더욱 돈독해지는 것은 물론, 학생들과 교수들이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마음을 터놓고 여유로울 수 있는 밤이었다.

둘째 날 행사는 치과대학 건물에서 진행되었다. 예과와 본과 학생들이 동아리 별로 한팀이 되어 게임을 진행하였다. 동아리는 인원을 고려하여 허리케인, 하트, 놀뿔, CDF, 휘몰아, A2, 치카벨라와 현우회, 별뿔, 포도, 마늘, 아를로니아 총 10개의 팀으로 나누었다. 오전에는 각종 게임을 통한 대항전, 오후에는 "Egg Drop" 게임을 진행하였다. 오전 게임은 '책주 빨리 마시기', '물총 쏘기', '폐활량 겨루기', '폼으로 전달전달', '웃음 끌기' 총복이었다. 우선 '책주 빨리 마시기' 게임은 할 때로 책주를 빨리 마시는 게임으로, 각 동아리에서 남학우 한 명, 여학우 한 명을 뽑아 총 네 명이 누가 책주를 빨리 마시는지 겨루는 게임이었다. 무더운 날에 시원한 책주를 마실 수 있다는 생각이 자못

하는 학우들도 있었으며, 물론 잔잔 주악의 여파가 가시지 않아 평소와는 달리 질색하는 학우들도 보였다. 여학우들이 다 마시지 못한 책주를 남학우들이 대신 마셔주기도 하는 등 흥분한 모습을 보였다. 기록과 동아리인 CDF는 게임에 참가할 수 없으나, 우려를 듣기도 했으며, 실제로 현우회에 패배하기도 했다. '물총 쏘기' 게임은 4층의 옥상 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각 팀에 한 명을 뽑아 양동이를 들고 하고, 대항력 양동이에 물을 채우는 일이 이기는 게임이었다. 다들 물총을 들고 평소에는 보기 힘든 해맑은 모습을 뽐낼 여유 내내 볼 수 있었다. 주로 후배들이 양동이를 들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게임에 참가한 학년 중 가장 고학년인 본과 2학년 학우들이 양동이를 들어 목젓은 모습으로 건물을 활보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다. '폐활량 겨루기' 또한 한나의 열기를 시원하게 식혀 줄 수 있는 게임으로, 물이 담긴 그릇에 달걀만 넣고 누가 더 오래 견디는지를 보았으며, '폼으로 전달전달'은 제시된 단어를 폼으로 표현하여 첫 사람에게 전달하는 게임이었다. 마지막 사람이 몸짓을 보고 단어를 맞춰야 하는 게임으로, '대체 제시어가 뭐냐', '왜 이렇게 표현하느냐'는 반응이 많았다. 오전 게임의 최종 승자는 현우회였고, 풍물은 허리케인이다.

오후에는 "Egg drop"을 진행했는데, 수수깡, A4용지, 쌀, 테이프, 스티로폼 등 주어진 재료를 이용해서 계란을 3층에서 1층까지 안전하게 떨어뜨리는 미션이었다. 역시 치과대학 학생답게 다양한 형태의 구조물이 나와 서로의 결과를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Egg drop' 게임의 심사 기준은 주어진 재료를 사용했는지, 계란이 깨지지 않았는지, 그리고 표적에 정확히 떨어뜨리는지의 세가지였다. 최종 승자는 A2로, 박스테이프로 이용해 계란에 긴 끈을 만들어 달아 그 어느 동아리보다 정확하고 안전하게 계란을 1층에 놓을 수 있도록 했다. A2의 상식을 뒤집는 기발한 결과물에 다른 학우들 모두 A2의 승리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오전과 오후 게임을 모두 종합한 최종 승자는 놀뿔, 최종 풍물은 허리케인이었다. 무수한 눈빛은 상품으로 동아리 지원금을 지원받았다.

니사금을 통해 선후배, 동기들, 그리고 교수님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지며 돈독함을 쌓을 수 있었으리라 본다. 한편으로는 1학기의 마지막 큰 행사인 만큼 아쉬운 마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뒤돌아 볼수록 많은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더 열심히 학업에 정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윤길경안 / 편집은유리

한국 치과대학(치의학 전문대학원생 연합이 주최한 2016년 제32회 전국 치과대학(치의학 전문대학원)총제이하 전치제)가 지난 5월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열렸다.

이제껏 교수 그리고 예과 1학년, 예과 2학년, 본과 1학년, 본과 2학년 총 200여 명의 재학생들이 축제에 참여하기 위하여 이른 아침 서울로 출발하였다. 매년 5월에 열리는 이 행사는 경북대학교를 비롯하여 경희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대학교 등 전국 11개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생 2천여 명이 아우러져 재학생들끼리의 단합을 도모하고, 전국의 치과대학 학우들과의 교류를 이어갈 수 있는 최합의 시간이다.

오후 2시에 평화의 전당 앞 광장에서 개회식을 통해 전치제의 시작을 알렸다. 개회식에는 대한치과외사협회장 최남섭 회장, 한국 치과대학공/치의학전문대학원공연합회 이재일 회장 등 여의 내빈과 전국 11개 치과대학 학생들이 참석하였다. 대한치과외사협회장 최남섭 회장은 축사를 통해 "전국 11개의 치과대학 및 치의학 전문대학원생들이 모두 하나가 되는 축제가 되길 기원하며 모두의 피와 재능을 마음껏 펼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웨스카병원대학, 연리틀 코칭하기, 해부 CX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경북대학교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은 웨스카병원대학에 본과 2

학년 예규희, 최학재 학우가, 연리틀 코칭하기)에 본과 2학년 김희영, 안유진 학우가 출연하였고 해부 CX 워크에는 본과 1학년 김민지, 김경희, 김우성, 김재석, 민경록, 신병걸, 이희연, 이상진, 정유원, 하지철 학우가 출연하였다. 아쉽게도 웨스카병원대학과 해부 CX 워크에서는 우승을 차지하지 못하였지만 연리틀 코칭하기

에서는 다른 학교 학생들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맞춰 본교 학생들이 우승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외에도 야구, 축구, 테니스, 농구, 배구, 볼링, 검도, 탁구 등 다양한 종류의 치과대학 체육대회가 행해졌으며 행사장 내에는 무료 진료 부스를 설치하여 구강 건강 및 구강 보건교육을 진행해 인근 주민들의 발걸음 인산인해를 이뤘다. 아울러 치과대학별 구강 보건교육 현황 및 경험을 공유하는 워크숍도 함께 개최하였다.

13일 저녁에는 어울림 마당을 통해 참여 학교 소개 및 각종 행사에 대한 시상에 이어 록 페스티벌 및 대학별 참가자문화대회가 펼쳐졌다. 대학마다 밴드, 랩 등 다양한 공연을 준비하였는데 본교에서는 밴드 동아리 A20에서 여가진 구의 시간을 달려서, 우리 구슬 등을 선보이며 경북대학교의 재능을 발산하였다. 이어진 인기 걸그룹 '트와이스'의 축하공연을 통해 전치제의 열기는 더욱 고조되었다.

전치제 행사를 준비한 33대 학생회 '가온' 학생회장/학생부회장, 2학년 대표단과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1, 2학년 학우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자리를 빛내준 교수들의 지원 덕분에 2016학년도 전치제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6개 학년 소식)

## 다들, 안녕하십니까?

글 김민주, 최수영, 김대근, 오주애, 이지연, 이아미  
편집 장민호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고 얼마 전에 꽃잎이 되는 듯하시니, 조금씩 햇빛이 강해지는 여름이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바쁘게 생활하며 달려온 지 어느덧 4월이 되어가고 벌써 방학이 다가옵니다.

올해 새로 입학한 예과 /학년과 본과 /학년 학생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고 생활하는지  
이제 선배가 될 예과 2학년 및 본과 2, 3, 4학년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가장 가까운 곳으로 다가가 살펴보았습니다.

### <예과 /학년>

학교에 입학 후 벌써 한 학기가 지나가고 고등학교를 갔던 많은 친구들부터 다른 대학교에 다니다 온 친구들까지 모두 새내기들 마음으로 설레는 한 학기를 보냈습니다 특별한 사건은 없지만, 새로운 환경과 생활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한 학기가 훌쩍 지나갔습니다 수업도 열심히 듣고 치과 대학 내 동아리나 중앙동아리 활동까지 열심히 하며 알찬 학교생활을 했습니다 입학 전 상상했던 치과대학의 전공 과목 수업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기공과작과목 등 고등학교 수업의 연장선 같기도 하네요. 강의실도 거의 옮겨 다니지 않고 동기들과 함께 수업은 듣고 있습니다. 전공 공헌 과목 뿐만 아니라 교양 과목들도 동기들과 함께 듣다 보니 더 빨리, 훨씬 동기들과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예과 /학년과 2학년이 함께 강의실을 사용하는 등 본과에 처하는 듯한 공간이 조금 무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단과대학 건물이 치과병원 쪽에 있지만, 본과에도 우리의 공간이 더 확보되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보기도 했습니다 2학년에게는 어떤 수업은 듣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수업들이 있을까? 아마 각자가 수강 신청을 하는 다음 학기부터는 지금보다는 더 좋게 어떤 수업은 듣게 될 것 같아요 으르르께 다음 주부터는 기말고사 기간입니다 2주 동안 치러질 기말고사에 대비하여 지금도 다들 열심히 공부 중이에요. 이 시간이 방학될 때면 기말고사가 끝나고 방학은 즐겁고 싶겠네요. 다음 방학 즐겁고 재미있게 보내고 2학년도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 <예과 2학년>

예과 2학년이 되면서 준비가 생겼다는 기쁨도 잠시, 입학 당시만 해도 영현할 것 같았던 예과 생활이 어느덧 /년도 남지 않은 시점이 되어 버렸습니다 본과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야 치의학도로서 무언가 의미 있는 것은 배운다는 기대감이 있기도 하지만 선배님들에게 본과 삶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 듣다 보니 동기들 사이에서는 막연한 걱정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반응도 여러 가지인데 그 어느 때 보다 열심히 공부해도 잘 되고 싶어는 동기들과 대하는 게일은 하게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는 분일 제일만 하는 동기들도 있고 마지막 길 반짝은 활동하여 잘 기건의 해외여행은 준비하는 동기들 중은 여러 심리학의 모습은 본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과 2학년 학생들이 아득한 걱정한 했던 것은 아닙니다 3-4학년은 새로 입학한 예과 /학년 준비생들의 하루를 도와주기 위한 열의를 준비하느라 매우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축제 제정일 5월은 전치제와 나사고 같은 큰 축제들 속에서 실심생이었던 작년과는 다르게 제정일은 느끼고 할일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말고사라는 눈앞에 직면한 걱정을 해야 하는 시기도 다가왔습니다. 어마한 저운 보살한 예과 2학년 동기들 모두 남은 기간은 준비 없는 예과 생활로 잘 마무리하고 모두 같이 본과에 들어가 5년 동안 훌륭한 치과의사로 성장하길요원 바랍니다

### <본과 /학년>

얼마 전에 꽃잎이 되는 듯하시니, 조금씩 햇빛이 강해지는 6월이 되었습니다. 치의학전문대학원 마지막 기수를 입학하신 한지 어느덧 세 달이 지나, /학기 교과과정의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까지 2달간은 기공을 할기 위한 수업과 시험의 연속이었다면, 얼마 전부터는 모의시험은 수업, 2주에는 실습을 하는 실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실감과 같은 핏가로 힘들었지만, 나를 지나는 길은 보면서 뿌듯함을 느낍니다. 생각해보면 바쁜 와중에 꽃잎도 피고, 생일타기도 하고, 각각 동아리 활동도 하는 등, 정말 일처럼 지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입학하기 전에 내태한 생활은 하던 저에게는 상상도 못 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 많은 것이 바뀌었는데, 한 귀중(지)만 CCO 생기고, 이를 방학에 결혼하게 된 학생들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서로가 잘 알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2월 문과 때 처음 만나 서약서약하던 사이에서 지금은 서로를 잘 알고 흔하게 지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현재 동기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대화 주제는 당연히 방학 때 할 할까? 입니다. 일단 저는 학기 말에 너무 지칠 것 같아 체력도 기르고 몸 쉬고 싶네요. 치료봉사활동도 처음이라 기대가 됩니다. 동기들은 어떤 건는 사실이라 가장 쉽고, 대부분이 점으로 잘 것이라 대구에 넣는 사실은 얼마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2학기도 서로 좋은 모습으로 만나게 되길요. 몇개월짜기라는 협다면 힘은 좋은 길다면 길 시간과 마무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글은 쓰는 시점이 곧 마감될 방학 영 개과 생리학 두 번째 실습 그리고 기말고사가 남았네요. 모두 잘 방학은 맞았으면 합니다! 남은 시간까지 학이입니다!



사희

### <과과 2학년>



기 잘 마무리합니다.

끝나지 않은 것만 같으면 /학년을 마치고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한 2학년 생활도 잠시! 병원의 문안은 중간고사라고 했나요? 처음 경험하는 임상 과목들과 실습-과제-시험-실습의 험바퀴를 돌며 힘드지만, 하루하루를 바쁘고 알차게 보내고 있습니다. 굵은 선, 갈색 선은 원안도 하고 다이온 안드라 밤색 석고실과 기공실은 외과며 고근분투를 하는 사이 어느새 2학년 /학기도 지나가 버렸네요. 한 학기 동안 나의 책상이 되어 온 병실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니, 형제를 알아볼 수 없었던 브랜 제진치들이 제법 그럴듯하게 나오는 걸지에 이르렀습니다. 2학년만이 공부와 실습에만 매진했다고? 아니요- 그사이 동기들 중에서는 새로운 귀족들도 탄생했고요- 동기들이 작성된 대로도, 각 동아리 회장단들 말아서 바쁜 와중에도 학교 행사도 동아리도 잘 구비하고 있습니다. 또 6월에는 만가공 소식이 있습니다. 김세은 학우가 통해 아끼의 엄마가 된대요. 풍류으로도 자기 힘든 학교생활은 친구보다 열심히 해내고 있습니다. 특히 아끼는 병원에서부터 치의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것 같네요. 세은 언니 조금만 더 힘내세요! 매일 시간과 도구가 부족하지만 서로 배려하고 도와주면서 /학기는 무사히 마무리 해가고 있습니다. 온종일 앉아 일군보다 더 많이 보게 되는 동기들! 조금만 더 힘내서 2학년 /학



### <과과 3학년>

병에 학교생활의 반이 지나가고 3학년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준비할 것만은 하지만도 시간이 부족하면 2년이었는데 어느새 3월부터 원내생이라는 이름은 달고 병원에 실습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은 학교라 다르다. 긴장을 많이 해야 한다.' 이만한 무서운 얘기들도 있었지만 학기의 끝은 달라라는 지금, 대부분의 동기들이 무사히 원내생 실습을 마칠 것 같습니다.

병원 실습의 분수령은 넘어 5개 임상과의 실습을 마쳤을 즈음 학년 지도 교수님일 실종일 교수님, 박의관 교수님과 함께 오리나하로 졸업 여행을 떠났습니다. 맑은 바다와 하늘은 만끽하며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름 시간은 소묘으로 끝났던 학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3학년일때 병에 졸업 여행을 가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앞으로 다 함께 여행 장만한 시기가 조금밖에 없다는 선배들의 말에 서글거리기도 했습니다.

물과 마음이 바쁜 와중에도 여름 시간은 무사하여 개인적인 성취를 이룬 동기들도 있습니다. 건강한 체격의 김태일 학우는 4월에 있었던 대구 국제 마라톤에서 하프 코스 완주하여 주위의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자전거에 꼭 빠져있는 이지영 학우는 장거리 대회인 캔토너스에 참가하여 200km를 1시간 20분에 완주하는 등 여러 대회에 참가하여 체력을 기르고 있습니다. 7월 결혼을 앞둔 김은지 학우는 결혼 준비를 하느라 바쁘지만 친구보다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3학년부터는 이제 공식적인 병력이 없이 병원 생활은 이어나가게 됩니다. 체계 관리와 연달 관리로 병원에서 실은 학교와 병원 생활도 무사히 마무리했다면 좋겠습니다.



### <과과 4학년>

병원생활이 한 학기도 채 남지 않은 4학년들은 제대를 기다리는 군입찰일, 또는 해외로 이민을 기다리는 신외국일 이제내선제나 졸업할 날만은 온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쓰게도 서로 글공해하는 것이라하는 수구는 신경외과 환자군 구했다더라, 수구는 치주치과 환자군 구했다더라 하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실선한 소식이라면 4학년 대표 마담 이남현(aka미남현) 학우가 오는 7월 3학년 같은지 학우와의 결혼식은 앞두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이마에 학우는 병원에 사망스러운 얘기를 듣게 되어 기쁜 한편, 앞으로 남은 병원생활과 귀수준비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아, 한 가지 중요한 소식이 바깥 병원에도 바로 다음 주부터 병원에 원내생들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제는 드디어 모든 PK-원내생 학이 결정되었습니다. 어느새 일 년이 가까이 지나며 매너리즘에 빠지고 있는 병원생활에서 꼭 원내생이 새로운 활력이 되어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 치약과 플라스틱, 어떤 관계일까



글 박민준 / 편집 권유리

## 우리가 사용하는 치약에는 어떤 성분들이 들어있을까?

치약마다 추구하는 특수효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치약은 충치 예방, 잇몸질환 예방, 치주질환 예방, 치태 제거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탄산칼슘, 일산화인산나트륨, 보르테륨아세테이트, 폴리메틸렌, 폴리프로필렌 등을 사용한다. 이 중에서 치태 제거, 치석 제거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미세 플라스틱 성분은 이 있는 배로 폴리메틸렌과 폴리프로필렌이다. 미세 플라스틱은 생물물리학적 용어로 환경 중에 존재하는 미세한 플라스틱 입자를 뜻한다.

기도 한다. 왜냐하면 0.001-5mm 크기의 플라스틱 과립이 입안에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원형 치주염을 앓는 환자의 경우 치주낭 깊이가 5-8mm이다. 이 경우 치주낭에 미세 플라스틱이 침투하면 이것을 환자가 스스로 제거할 방법은 없다.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은 고형적 성분으로 알려진 DOT. 독성이 강한 1970년대에 금지된 PCBs, 발달장애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 보름화 난연제 같은 인공성 유기오염물질(POP)을 받아들여 독성을 띠기도 하는데, 양치질하거나 칫솔 세척물을 사용하면 공기 중으로 성분이 빠져 호흡기로 흡입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 미세 플라스틱은 환경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하수 정화장치를 통과해 바다에 유입되어 해양 오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치약에 미세 플라스틱 성분이 들어가야 할까? 국제적으로 많은 기업과 연구단체는 호주 기업, 호프만 기업 등 미세 플라스틱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대체 성분들을 탐구하고 있다. 즉 이 문제는 임시로 해결한 원자력 발전소의 문제를 달거나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 지역을 지정하는 문제처럼 한 번에 해결할 수 없는 난감한 사안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리고 여러 시민단체의 노력 결과 국내외 55개의 일상생활용품 기업이 2017년 7월까지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중지하고 대체성분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 치태와 치석이란

먼저 음식을 먹고 난 후 찌꺼기들이 치아에 남아 형성한 세균 막이끼의 딱인 치태를 만들고 그대로 치태를 방치하면 석회화되어 치아와 잇몸 사이에 단단해져서 부착되는 치석이 된다.

치태와 치석은 잇몸이 빨갛게 붓고 피가 나며 냄새가 나게 한다. 심하면 치주염 증상으로 인해 치아의 뿌리가 노출되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하다.

미세 플라스틱은 소비자에게 치약의 기능을 선전하기 위한 도구일 뿐, 치태 제거 기능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지 않는다

##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은

에틸렌과 프로필렌을 중합하여 만드는데 탄소와 수소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치약에서 사용되는 폴리메틸렌과 폴리프로필렌은 치아 표면을 연마하는 기능이 있어서 치태를 긁어내는 기능을 한다. 미세 플라스틱 알갱이가 치아 표면에 닿으면서 물리적으로 마찰력을 이용해 치태 벗기듯이 단단히 부착된 치태를 긁어내거나 치석을 제거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이런 부작용을 감수하더라도 미세 플라스틱은 치약에 사용될 만큼 탁월한 치태 제거 기능을 가지고 있을까?

미세 플라스틱을 홍보하는 치약의 경우 일반적으로 미세한 과립이 치태, 치석을 80% 이상 제거한다는 광고 문구를 쓴다. 하지만 신승철 단국대 치과대학 교수(대한예방치과학회 부회장)는 "미세 플라스틱은 소비자에게 치약의 기능을 선전하기 위한 도구일 뿐, 치태 제거 기능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하지만 폴리메틸렌과 폴리프로필렌이 치아 표면을 연마해서 치태만 긁어내는 것은 아니다.

폴리에틸렌이나 폴리프로필렌 같은 미세 플라스틱이 포함된 치약을 사용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잇몸이 빨갛게 붓고 출혈이 잦아지거나 치주염을 앓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미세 플라스틱 사용에 관하여 기업이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고 있다. 자율규제는 잘 그대로 '자율'이기 때문에 결국 이를 규제할 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으며 캐나다와 미국과 같은 선진국을 따라 미세 플라스틱 사용에 관련된 규제 법안을 마련하여 일상생활용품에서 미세 플라스틱의 부착물이 줄어들었으면 한다.





## 이란 핵 협상 타결과 개방

글 송준석 / 편집 권이은

이란 핵 협상이 2016년 1월 16일 역사적인 타결을 이뤘다. 이란은 국제사회와 약속한 핵 협상 이행 조건을 충족하면서 핵 관련 모든 경제·금융 제재에서 벗어났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미국 등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던 이란은 37년 만에 국제사회로 복귀하게 됐다. 이란은 인구 8천만의 중동 최대 내수시장과 자원 그리고 뿌리 깊은 역사와 문화를 두루 갖춘지만, 우리에게서는 그다지 익숙하지 않은 국가이다. 이란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핵 협상에 도달하게 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경제적, 외교적 전망은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 ▷ 근대화 이후 보수정권 등장으로 인한 경제난

이란은 1906년 일련 혁명에 성공하여 아시아 국가 최초로 입헌군주제 국가가 되었으나, 외화는 여전히 왕의 영향 아래 있었다. 1970년대까지 권미 성향인 몰라비 왕조는 미국으로부터 많은 원조를 받아 경제를 발전시켰으며, 이와 함께 중동 국가 중에서 가장 근대화, 서구화되어갔다. 하지만 몰라비 2세의 황권 강화를 위한 탈 이슬람화 정책, 노골적인 권미주의 성향과 황제 개인의 부패에 반발하여 70년대 중반부터 반정부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결국 1979년 1월 16일에 일어난 이슬람 혁명으로 몰라비 왕조는 무너지고 공화정이 들어섰다. 권미 성향인 몰라비 왕조가 무너짐으로써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경제가 어려워졌다. 특히 2005년에 강경 보수정권이 핵무기 개발에 집중하였고, 핵 제재로 경제난이 가중되었다. 이에 따라 2013년에 경제난에 영혼을 느낀 국민에 의해 중도 온건파 정권이 탄생하였다. 온건파가 정권을 잡음으로서 핵 협상이 타결된 것이다.

### ▷ 이란의 경제적 중요성과 한국 기업들의 진출

한국 입장에서 이란의 경제적 중요성은 상당히 크다. 사우디에 이어 인구 4위에 달하는 8000만 내수시장과, 중동 2위 산유국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가 경제에 호재로 작용하는 이유는 한국 기업에 대한 한지 경시가 양호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이 2011년 12월 31일 사실상 이란산 원유 금수 조치 같은 강도 높은 대(對)이란 제재를 시행한 후에도 많은 한국 기업들은 철수하지 않고 현지 사무소를 유지해 '외의의 한국' 이미지를 심었다. 또한 '대공공'과 '주공' 드러머가 현지에서 80%가 넘는 시장몰로 큰 인기를 끄는 등 한류로 인해 우리 기업들의 이란 진출이 한층 탄력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란 경제해제로 건설, 금융, 자동차, 철강 업계 전망이 밝을 것으로 예측되며, 의료 분야 진출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향후 5년간 보건 의료 분야에서만 2조 3000억 원대 경제적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란의 인구당 의사 수는 한국의 4분의 1 수준인 데다 오랜 경제 제재 여파로 보건 의료 분야가 낙후된 상태에서 병문 간염이나 제각 의료기기 수출 등에서 '기회의 땅'으로 여겨진다. 특히 이란 여성들의 미에 대한 관심이 높아 성형, 화장품 부문 진출도 기대되고 있다. 치과계의 이란 진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임플란트 및 치과용 의료기기 전문 업체 '켄티스'는 이란 대통령 이란 방문 때 이란 경제 사절단을 파견하여 LED 수술 등 1천만 달러 계약을 이루게 되었다. 앞으로 3D 프린터 등 다양하게 신제품들로 시장범위를 더욱 넓혀나갈 것으로 보인다.



▲ 최근에 대통령이 지난 5월 이란을 방문하여 회담이 되었다. 1962년 한국 수교 이후 우리 대통령은 첫 국빈 방문이다. 이번 방문을 통해 상호 규율의 건설 군사 수호와 한국형 병행으로 6군 짓기로 하는 등 경제, 문화적 교류가 본격화 되는 전망이다.

### ▷ 북한 핵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란 핵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며, 북한의 핵 문제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란 도착에 앞서 '우리는 이란 핵 협상 타결과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주는 함의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고, 북한이 하루속히 진정성을 갖고 협상 과정에 복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 핵 문제는 본질적으로 이란과 다르게 협상 전망은 밝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다. 일단 이란은 핵실험하지 나아가지 못하였지만, 북한은 이미 4차례 핵실험을 벌여 기술적 진척도 자체가 다르다는 점이다. 경제·금융 제재의 반응 정도도 다를 수 있다. 고려대 국제대학원 김성환 교수는 "경제 제재로 불만이 많은 국민이 후로는 온건 성향의 정부로 정권 교체를 이원지만 일단 특정한 북한은 그런 걸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이란은 미국이 전략적 권력 대상으로 삼았고, 유럽에서도 핵 포기를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한 반면, 북한은 인접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전략적 지원을 받아내기 어렵다는 점이 북한 핵 협상 전망을 어둡게 한다.



## 클린 디젤의 역습

글 박근협 / 편집 박재영

독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스캔들 파문의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당장 전 세계적으로 리콜에 들어갈 비효율도 수 십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한국도 배기가스 조작 여부를 조사 중이다. 독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 사태는 독스바겐 내부에서 발생한 스캔들이지만 이로 인해 디젤차 자체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들이 저지른 일련의 배출가스 조작사건의 여파로 환경단체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된 디젤차의 수는 휘발유차의 89%에 달하며 지난해 등록된 신차의 수는 디젤차가 기술혁신을 앞지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팔리는 수입차 10대 중 7대는 디젤차다. 이러한 디젤차의 급증은 정부의 정책이 있다. 2009년부터 정부는 오염물질을 덜 배출시키는 유럽의 배출가스 기준에 부합하는 디젤차에 대해 환경 부담금을 면제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신차 구매를 염두에 두었던 소비자들은 환경부담금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 앞다투어 디젤차로 갈아탔다. 더욱 많은 소비자들이 저공해 차를 비롯한 친환경 차를 구매하도록 장려하려는 발의한 정부의 저공해 차 인증제 또한 디젤차의 매출이 늘어남에 한 몫했다. 저공해 인증을 받은 차량의 소유주들은 공정분할료를 면제 받고, 공공주차장을 이용할 때 절반의 할인 혜택도 부여했다.

클린디젤에 관한 관심은 수요자 자동차가 프리우스 하이브리드를 출시하던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모델의 혁신은 친환경 차량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같은

이들이 기술력이나 경우 같은 연료로 동력을 발생시키는 내연기관이 가까운 미래에는 완전연소 할 것으로 생각하도록 만들었다. 반면, 100년 넘는 내연기관 개발 역사를 가진 독일 브랜드들은 역으로 다량연기의 효율성에 주목했다. 디젤 연진은 질소산화물을 배출이 상대적으로 많지만 기술력 연진과 비교해 더 적은 연료로 강력한 힘을 낼 수 있다. 별도 장치를 장착해 질소산화물만 해결하면 연비 좋고 깨끗한 차를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독일 자동차 업체들은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 독스바겐이나 보스 차 안에서 문제가 된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를 장착해 연료가 최대한 완전히 연소하도록 하거나, 그래도 남은 질소산화물은 선택적 환원 촉매장치(SCR)나 환원질소 촉매장치(LNT) 등의 전자 장치를 통해 걸러내는 방법을 고안했다. SCR과 LNT에는 '백금'이 들어가는데 이 차가 더 고가다. 자동차 회사들이 최대한 적은 백금을 쓰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독스바겐처럼 EGR을 조작하는 것과 같은 공수를 부리게 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산화질소를 덜 줄인 디젤차들이 친환경 차라는 이름으로 날개 달린 듯 팔려 나갔다. 값싼 연료며, 높은 연비 거가다 환경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디젤차의 인기는 날로 높아져만 갔다. 하지만 디젤연진은 독스바겐 사태가 나기 전부터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다. 세계보건기구는 디젤배출가스가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보고서를 냈으며 캐나다 보건부는 디젤 가스가 호흡기, 심혈관계, 그리고 면역체계에 악영향을 초래한다는 결론을 내린다는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이러한 디젤차에 대한 우려와 문제점들이 속속들이 드러나자 소비자들의 관심이 다시 기술력과 친환경 차로 돌리고 있다. 특히 최근 환경부의 디젤차 배출가스 조사에서 조사 대상 대부분의 차종이 인증기준(0.08g/kWh)보다 높은 질소산화물을 배출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대디 디젤'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올해 들어 4월까지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총 1만4586대의 친환경 차를 판매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국내에서 팔린 친환경 차 1만2742대에 비해 42.0% 증가한 수치다. 친환경 차 내수 판매 증가에는 하이브리드차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올해 1~4월 누적 기준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하이브리드차 판매량은 1만4173대로, 전년 동기 9,950대보다 42.4% 늘었다.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디젤 차량을 지목한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많은 소비자가 친환경 차로 눈을 돌리고 있어 하이브리드차 판매는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부터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며 상승장구하던 디젤차의 성장세가 계통이 갈린 모습이다. 이 같은 흐름은 디젤차 비중이 높은 수입차 시장에서 더욱 뚜렷하다. 올해 1~4월 국내에서 판매된 디젤 수입차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7% 감소한 반면, 하이브리드차 판매량은 39.8% 증가했다. 디젤차의 성장세를 이끌던 '클린 디젤'이라는 표어가 핵심상이 드러나면서 소비자들의 핵심값이 커졌지만 기술력과 친환경 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들이 일시적일지 모르지만 이미 큰 흐름을 바꿀지 귀추가 주목되는 바이다.

## 3박 4일간의 현실 도피 졸업 여행

글 홍유진 / 편집 김경민

지난 5월10일, 3학년을 시작하자마자 정신없이 달려온 10주간의 원내생 생활을 하고오랜만에 14학년 동기들이 모여 오키나와에 졸업여행을 다녀왔다. 한달 전 갑작스럽게 계속되는 일본의 지진으로 인해 조금 걱정은 했으나 병원생활에서 벗어나 무탈하게 3박4일을 쉬고 돌아왔다. 거의 일년 만에 동기들끼리 가는 여행이라 더 즐거웠고, 14학년 담당 교수이신 신홍인 교수님과 박의근 교수님도 함께 하여 뜻 깊었다.

### DAY 1. 졸업여행 출발!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이었지만 인천공항에서 출발해야 해서 생각보다 긴 여정이었다. 인천공항까지의 이동시간 때문에 새벽 4시에 학교 앞에서 집합한 대구팀은 약 9시간 만에 오키나와의 나하 국제 공항에 도착할 수 있었다. 크기가 작은 캐리어를 들고 온 학우부터 사탕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캐리어를 들고 온 학우까지 다양했다. 특히 자전거 권유서류를 다녀올 정도로 열정 가득한 한 학우가 오키나와에서도 자전거 여행을 계획하고 자전거를 끌고 와 교수님들의 여유까지 끌었다. 공항을 나서자 생각보다 쉽고 쉽고 흐린 날씨에 조금 실망하였으나 첫 실재임을 잊지 않고 수리적으로 출발하였다. 수리실은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으로 450년 류큐 왕국의 화려함을 간직한 곳이라고 소개해주었다. 오키나와가 지리적으로 일본보다 대만에 가까워 많은 중국의 영향을 받아 붉은색이 눈에 많이 띄었다. 그 후 국제거리에 도착하여 자유시간을 가졌다. 국제거리의 '몬키호테' 쇼핑중에 여학우들이 물려들었고 다른 우리들은 맛집을 찾아나섰다. 곳곳에 숨어있는 일본거장식, 소바, 스테이크집을 찾아갔는데 마치 약속한

듯 가는 곳마다 동기들을 쉽게 만날 수 있어서 웃음을 자아냈다. 많은 음식 중 특히 오키나와의 오리온 맥주는 가나진 여행동안 괴롭혔던 대위를 잊게 해주는 시원한 맛이었다.

### DAY 2. 오키짱!

계속되는 흐린 날씨에 조금 실망했지만 오키나와의 유명한 류라우미 수족관만큼은 더위를 조금 잊게 해주었다. 특히 오키짱 돌고래쇼는 돌고래들의 귀여움에 반해 한동안 헤어 나오질 못했다. 류라우미의 자랑인 세계 최대의 수족관 앞에서는 너무 커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느낌이었다. 낚시를 좋아하는 한 동기는 어떤 물고기가 맛있는 물고기인지 알려 주기도 했다. 다양한 해저생물들을 본 뒤, 코파리 모양의 기념품으로 이루어진 만화모자를 보여 갔다. 바람이 많이 불어 사진 찍기가 불편한 와중에 다들 만화모가 잘 찍히는 스틱을 찾느라 애썼다. 박의근 교수님의 사진을 찍어드리게 되었는데 작아보이게 찍는다면 호통을 치셔서 웃음바다가 되었다. 마지막 일정으로 아메리칸 빌리지에서 각자 자유시간을 가지고 호텔로 돌아왔다.



### DAY 3. 자유시간!

원내생 생활을 시작한 뒤로 갖지 못했던 자유시간을 오키나와에서 만끽했다. 마지막 날의 날씨는 다행히 그 어느 때보다 좋았다. 오키나와의 상징인 예메알드 빌 바다에서 스노클링, 스쿠버다이빙, 카약 등 다양한 활동을 즐기는 팀도 있었고, 호텔 앞의 해변에서 풀놀이하는 팀도 있었다. 렌트카를 이용하여 해변도로를 달려 조금 멀리 떨어진 맛집을 찾아 나선 팀도 있었다. 애굽이나 동기들을 마주치게 되어 좁은 세상에서 한 번 더 같았다. 여행의 마지막 일정으로 저녁 바베큐 파티를 호텔에서 가지며 언제 다시 올지 모를 후가를 마무리하였다.

마침 졸업을 하기까지 7년 넘게 남았지만 다시다나면던 지난 2년을 함께한 동기들과 새로운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기회였다. 이번 다시 현실로 돌아왔지만 3박4일간의 현실도피를 통해 힘을 내어 무탈하게 남은 원내생 생활을 잘 마무리하길 바래본다.

# 베토벤, 32개의 피아노 소나타



글 김신재 / 편집 손예지

피아노로 '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소형 연습곡과 함께 평생 쥐고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베토벤 소나타이다. '소형의 연습곡은 과학이다. 하지만 베토벤 소나타는 예술이다. 하지만 난 너무 어려서 베토벤을 이해 못 해. 그러나 그냥 의자에 제대로 앉고 타건 제대로 하고 백자 제대로 맞추고 페달 밟으려고 할 때 제발 '발아라' 라고 아주 어릴 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다. 소형 연습곡에 비해서는 딱히 손이 안 굴러가는 구간도 없었기에 익보를 많이 읽어오고, 그럴 때마다 선생님은 계속 한숨을 쉬었다. 이 소나타를 베토벤이 몇 년 동안 작곡한 줄 아니.'

꽃 문단을 쓰고 보니 편지 보면 같기도 하다. 어렵게 하는 그제 수많은 어린 전공 지방생을 질러서 그만두게 만드는 수많은 줄로만 알았다. 그때 나에게 베토벤 소나타는 예문, 예고, 음대의 입시 과제 곡일 뿐이었다. 베토벤은 작어도 피아노 전공자들이나 프로 피아니스트들에게는 살짝이나 다름없다. 비탄할 거라도 없고 혹시 있더라도 비탄해서도 안 된다. 비탄했다가 돌아오는 건 베토벤뿐이었다. '네가 할 안다고?' 어릴 때의 난 그런 것에 거부감을 느꼈다. 아마 총과였었던 것 같다.

최근 다시 베토벤 소나타를 배우고 있다. 솔직히 베토벤의 위대함까지는 잘 알지 못하였다. 하나 베토벤을 싫어하던 어린 시절이나 자신이 정말 이해가 되는 것 같다. 베토벤이 여전히 싫다는 것이 아니다. 베토벤이 그만큼 감상하기도 연주하기도 어렵고, 연습시간이 쌓이면 발랄수록 자신감이 없어지고, 심지어 베토벤에 대해 어떻게 글로 쓰고 있는 것으로 조금은 부담스럽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다. 그렇지만 워낙 명곡이기도 하고 피아노를 연주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쳐보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곡들이나 지면을 열어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베토벤은 일단 고전주의 작곡가이다. 우리가 흔히 '고상한 클래식 음악'이라고 할 때 그 '고상'이 맞다. 클래식 음악의 기준을 일컫게끔하는 사람들은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등 고전 음악과 그 이전 바로, 낭만 등의 바로크 시대 음악만을 클래식이라 생각한다. 고전 시대의 음악은 형식미를 극도로 추구했다. 베토벤이 가졌던 진보적인 마인드와는 별개로 고전에 속해있기 때문에 주어진 형식에서 크게 벗어나는 곡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 형식이라는 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로 다양해서 모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크게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이다.

형식만 고경한 것이 아니다. 음악 어렵도 어느 정도 고경되어 있다. 음표의 길이, 침표의 길이, 슬러, 스타카토 등등 하나하나 고경한 음악적인 의미가 있다. 어느 하나도 허투루 처리한 것이 없다. 연주자는 이걸 다 '읽어서' 연주를 해야 한다. 다시 말해, 낭만주의 극저음 곡 전체의 맥락을 살려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악보에 적힌 것 그대로가 의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일단 있는 그대로 연주를 해 주는 것이 기본이라는 얘기다. 그래서 유독 고전 시대의 음악을 들으면 지로 전 듯한 리듬감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다.

얘기까지는 고전주의 음악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특징이었고, 이제는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만이 가진 특징을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베토벤의 소나타는 시대별로 초기, 중기, 후기 세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다. 초기와 중기, 그리고 중기와 후기 사이의 구분이 모호하기는 하지만, 초기의 대표작인 3번, 중기의 대표작인 23번(달광), 그리고 후기 소나타 중 세 곡 (30, 31, 32번) 등을 꼭 듣다보면 각 시기별 특징에 대해 짐작할 수 있다. 피아노 소나타가 1번부터 32번까지 작곡되어가면서 피아노라는 악기도 점점 강하고 큰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진화해갔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음악 또한 상당히 달라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전체적인 감정선이나 음악 어법 등은 크게 변하지 않았고, 악기가 변화해가 표현의 폭도 넓어져서 그에 맞도록 곡도 함께 바뀌어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어울리지도 모르겠다.

또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는 피아노 소리만을 위해서 작곡되지는 않았다. 조금 과장을 보태어 '쇼팽이나 모차르트는 어느 곡을 들어도 오빠라고, 베토벤은 어느 곡을 들어도 다 교향곡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아닌 곡도 있기는 하지만, 베토벤은 교향곡에도 능했던 작곡가였기 때문에 피아노 곡을 작곡할 때 어느정도 오케스트라를 염두에 두었다. 피아노 한 대로 한악기의 조계음으로, 팀파니의 웅장한 마르카토, 목관 악기의 수군거림, 그리고 관금의 모호 같은 것들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로 증명되어 있었고, 이는 후대의 리스또나 슈만, 브람스의 피아노곡에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나 사실 이런 것들을 숙지하고 있더라도 베토벤을 감상하거나 연주하는 것은 상당히 난감한 일이다. 베토벤의 궁극적인 인생을 아는 것만으로는 한참 부족하다. 이렇게 베토벤고 나는 베토벤을 잘 모르겠다. 늘 나의 허접한 베토벤 연주를 따라하며 놀리셨던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너도 잘 몰라. 이걸 어떻게 알아? 알면 베토벤이지.'



## 태양의 후예에서 왜곡된 의료인의 모습

글 박은경 / 편집 손혜지

지난 2월 24일부터 4월 14일까지 방영되었던 KBS의 수목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대한민국의 인방을 경량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폭발적인 인기리에 방영을 마쳤다. 최종회 방영 시 시청률 38.8%를 기록한 것이 그 인기를 증명한다. 사실 나는 집에 텔레비전도 없고 한국 드라마를 보면 특유의 오글거림에 손가락이 없어진다 하는 미신을 가지고 있지만, 단지 유시민 대위가 인방을 경량했다는 소문을 듣고 이 드라마를 보게 되었다. 하지만 이 드라마는 정말 최소한의 의학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학생의 눈으로 볼 때 아주 끔찍한 의학의 고문들로 가득 차 있다.



우선 첫번째는 아예에서 멀지 않은 '개복수술' 장면이다. 해당 장면에서는 복강 내 출혈로 인한 쇼크가 온 환자의 수술 장면이 나왔는데, 긴급한 환자 상태 때문에 각종 부속물을 감수하고라도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다는 상상이 묘사됐다. 물론 실제 자간이 들어난 곳에서는 장비와 위생적인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예에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으나 넘어간다.

환자를 살릴 생각이 없는 '임플란트생술(ICPR)'도 많이 있다. 위험한 상황에 처한 환자들을 살리기 위한 임플란트생술이 드라마상에서는 너무나도 잘못된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다. 대한심폐소생협회(CPR)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흉골의 아래쪽 절반 부위를 강하게 규칙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압박해야 한다. 상인의 경우 최소 5cm의 깊이로 분당 최소 100회로 속도로 가슴의 중앙을 눌러줘야 하는데, 해당 드라마에서는 오히려 목을 조르는 듯한 행위로 쓸쓸한 맛을 남겼다.

근데, 드라마는 최자가 지남수술의 의학적 고문도 문제점은 굉장히 심해진다. 난민 때문에 심장 건강했던 최에게 걸렸다고 거지로 데려와 막 뒤 훑어 검사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 다이아몬드가 관측 핵탄 엑스레이는 압권이었다. 다이아몬드는 엑스레이에서 투명하게 찍혀 나온다. 그러나 엑스레이는 검은색으로 깨끗해야 한다. 하지만, 송해고가 들고 온 필름에서는 하얀 다이아몬드 실루엣이 어찌든 복강에 고여 있다. 이런 굳이 말하자면 강철 다이아몬드를 상했는데 우연히 그 위치도 잘 맞출한 수십 개의 강철 다이아몬드가 일렬로 장에 물론 구멍을 뚫어나갈 만한 촉에 고이는 것이다. 그리고 달려온 송해고가 배를 먼저쳐보지도 않고, 장근기를 1초간 대다니 호흡이 약하다고 장 파열을 진단하며, 수술하던 도중 감염이 의심한다고 다른 사람들을 다 나가라고 비강하게 소리 지른다. 큰 오류만 이 정도고, 사소한 건 셀 수도 없이 나왔다. 거의 의학이 관련된 모든 장면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된다.

자, 그런데, 나는 의학이나 기타 지식을 들어줄 생각이 더 이상 없다. 단순히 어떤 의학적 문화적상식을 따내서 이 드라마는 일반 과학 지식이나, 근대 상식에서도 터무니없는 해한가자이다. 내가 하려는 요점은 그게 아니다. 나는 오히려 이 드라마가 굉장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한다.

꼭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몇 개의 열로인고 그를 가로막는 다이나믹한 클라이맥스, 그리고 기원하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의 카타르시스다. 이 드라마는 대중들의 욕망을 심본 충족시키기 위해 현실이나 고문은 과감히 무시하고, 일반 대중의

눈높이에 서서, 그들이 보고 싶은 장면이라면 무엇이든 보여준다. 대중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의학적 지식을 내밀면서 흥탄이 배에 찍혔다고 바이탈을 재면서 병문으로 신속히 후송하는 장면도 아니고, 정확히 CPR을 하는 장면도 아니고, 문학적, 군사적 사실을 따져가면서 한 편의 다름을 연상하는 드라마가 아니다. 대중과 TV 안에는 직관적인 세상이 있을 뿐, 아무도 그것이 현실적인 경계에 있어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드라마는 과감히 현실을 탈피하고 통과시켜 자기들이 가장 잘 하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모두의 욕망을 발전시킨다. 그들에게 클러해야 분명히 대중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방법이 저 정도. 흥탄은 즉시 해결이 좋아야 하며, 흥탄상 반군 지도자는 어찌가 안이고, 파병한 나라 사람들은 어찌어찌 쓰고, 경은 영어를 쓰는 백인어어 할 것 같지 않은가? 적어도 대중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나라의 시공간을 구현해야한다 된다. 이런 문화적 물리적으로 뒤죽박죽 생겨버린 공간에서, 이야기는 워지않고 강행한다. 여우인공의 작은 재회 군무박질치고, 추적하고, 지하탈에 들어간다. 대탈이 지진도 나고, 적군도 쳐들어 오고, 전염병도 들고, 경은 백인 도끼로 총을 쏜다. 게다가 그 속에서도 몇 번씩 열로적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달달한 장면들은 계속 있다. 그 와중에 주인공들이 주고받는 대사들은 워낙 간헐하면서 어찌나 흥미롭고 기발한지, 또 손발이 얼어지게 하는 장면은 그 나옴대로 어찌나 잠신한지, 열로를 살어하는 나도 보다 몇 번을 소리 지를 뻔했다.

결론적으로 나는 이 통속적인 드라마에서 이야기하고자 하고, 이야기를 보고자 하는 욕망의 한계 추소를 보았다. 이미 지제는 의학 관련 소재가 아닐지라도 이제는 '의사'라는 직업이 TV드라마 속에 자주 등장한다. 오히려 태양의 후예는 어떤 대중들의 의사에 대한 클러를 좀 더 나쁘게 나타내준 드라마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는 의사가 가진 대중적인 이미지를 알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어떤 점을 노력해야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을지 알려주는 좋은 드라마였다. 물론 내 손가락처럼 아직 견제하고, 마지막으로 극중 정형외과 의사로 나온 송해고의 대사로 끝을 마친다.

"의사면 돈도 많이 벌겠군요. 돈에 쫓기는 인생보다 돈을 좇는 인생이 낫다가 내 말을이고, 남들이 뭐라건 내가 발은만큼 일하는게 내 용기구. 병문이랑 감상에 개업하는 것이 내 상사이에요. 속물이라 실망해도 할 수 없어요.."

